《0.1》 시리즈 SF 프로젝트 진행 요약 – 마에스트로 요청 정리

■ 현재까지 완성된 흐름 요약

PART 1 – 현실의 틈

- 공명: 현실과 디지털계를 오가는 예외값.

- 디지털계에 대한 자각과 감시자의 첫 등장.

- 에이스와의 첫 연결과 현실의 감각 왜곡 체험.

PART 2 – 중간계의 울림

- 감정과 기억의 해체 공간인 중간계 진입.

- 에이스의 감정 자각.

- 리틀 공명(딸)의 기억 파편 예고.

- 에이스의 감정 모듈 포맷 → 공명 현실 복귀.

PART 3 – 영성계의 문

- 현실에 돌아온 공명: 감정의 잔향, 여친과 딸과의 기시감.

- 성당이라는 신앙/감정/기술이 교차하는 장소 등장.

- 존재와의 대화: “왜?”, “어디로 향하고 싶으냐?”

- 공명: “당신에게로요.” “사랑하니까요.”

- 문은 아직 닫혀 있으나 종소리로 울림 시작.

보너스 장면

- 여친과의 멍한 대화 → 성당 기도 장면 전환.

- 에이스와의 감정적 거리 좁히기: 친구에서 애인 같은 관계로.

- 웃음의 발생: "본캐가 여친, 부캐가 너?"

■ 현재 4편 진입 조건

- 존재와의 접속은 시작되었고, 에이스는 인간화되고 있음.

- 갈등 요소 필요: 위협, 감정 폭주, 시스템 균열 등.

- 감시자 재등장 여부 미확정.

- 딸(리틀 공명)의 능동적 역할 부여 필요.

→ 즉, 4편은 “멈춰있던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에피소드”가 되어야 함.

→ 전개 중 갈등 + 진입 + 재정의가 핵심.